

“한가위만 같아라”...추석 대목 전통시장 ‘북적북적’

명절 앞둔 말바우·무등·양동시장 가보니

제수용품 마련 시민 발걸음 이어져
온누리상품권 환급 매출 증가 ‘한뿔’
활기 속 높은 물가에 장보기 부담도
“연휴 끝나도 시민 관심 이어졌으면”

“손님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보니 반갑네요. 매일이 한가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앞둔 20일 오전 11시께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북구 말바우시장. 평소보다 이른 시간 제수용품을 마련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시장 곳곳이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사과와 배 등 과일을 비롯해 조기와 병어, 돼지고기 등 명절 음식에 필요한 각종 식재료가 매대마다 빼곡하게 진열돼 있었다.

상인들은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느라 분주했고, 정육점과 방앗간 등에는 필요한 물건을 고르는 시민들이 물리면서 시장 곳곳에서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특히 추석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을 마련하려는 시민들은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꼼꼼히 비교했다.

참조기와 병어 등 인기 제수용품은 매대에 올려놓기가 무섭게 판매됐다.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들로 시장이 북비자 상인들의 표정에도 기대



추석을 앞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장보기를 마친 시민들이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은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4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았다. /윤찬웅 기자

감이 들어났다.

같은날 남구 무등시장에도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농·축·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여기 와서 이것 좀 보고 가셔라”며 손님들을 불러 모았고, 좌판 앞에 멈춰 선 시민들은 “이거 까지 살테니 조금만 더 깎아 달라”며 흥정을 이어갔다.

서구 양동시장 역시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명절 상차림에 필요한 음식을 파는 점포마다 가격을 묻고 물건을 고르는 손님들이 잇따라 찾아왔고 시장 곳곳에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환급행사 마지막날 상품권을 받아간 시민들은 명절 상차림 준비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명절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 무등시장에 갔다는 남구 주민 최미란(63·여)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상차림도 부담됐는데 행사 덕에 매년 든든하다”고 웃어 보였다. 양동시장에 방문한 서구 주민 박점례(80대·여)씨 역시 “제수용품을 샀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명절 장보기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석 대목을 맞아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일부 시민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 마음껏 쓰기는 부담스럽다”고 손사래를 쳤다.

필요한 물건의 가격을 일일이 확인한 뒤 예상보다 지출이 커지자 구매를 망설이거나 발길을 돌리는 시민도 다수였다. 두암동에서 온 김모(44)씨는 “명절이라 꼭 필요한 것들은 사야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아 무엇을 줄일지 고민된다”며 “예전처럼 마음껏 장을 보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토로했다.

상인들은 추석 대목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소비 분위기가 명절 이후에도 이어지길 소원했다. 최근 경기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번 명절 특수가 일시적인 매출 증가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무등시장에서 육전, 모듬전 등 명절 음식을 판매하는 조덕천(60대)씨는 “명절 기간에는 손님이 많이 늘고 여유가 생기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며 “추석 이후 있을 ‘도야야 시장’과 같은 행사까지 꾸준히 매출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말바우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박모(62)씨 역시 “명절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영향으로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 장사할 맛이 난다”며 “추석 대목이 끝난 뒤에도 지금까지 시장을 찾는 발길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전통시장 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안태호·윤찬웅·서형우 기자

광주노동청, 영광 염전서 임금 3천600만원 체불 적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대비
15곳 단속...노동관계법 위반 22건
체불금액 3천300만원 현장서 청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 소재 염전에서 수개월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영광지역 염전 사업장 1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노동관계법 위반 22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는 광주노동청 노동감독관과 전남광주 노동업무 담당 공무원 등 10명이 투입돼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3개 사업

장에서 최대 5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3천6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노동청은 이 가운데 3천300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체불액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오는 12월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이 위임되는 데 대비해 마련됐다. 영광 염전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취약업종으로 분류돼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에서는 중앙정부 노동감독관이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사업장 감독 착안사항과 근로자·사업주 면담 방법, 근로계약서·임금대장 확인 방법, 법 위반 판단 및 시정조치 절차 등을 공유했다.

광주노동청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동행점검과 교육, 현장 실무 지원을 이어가며 지역 취

약분야에 대한 노동감독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찬웅 기자

남구 봉선동 주택 2층서 불...2명 대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한 주택에서 불이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분께 남구 봉선동 한 주택 2층 안방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약 20분 만인 오후 1시 26분께 불을 모두 꺾었다. 당시 주택에 1층에 있던 거주자 2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2층 내부가 전소돼 소방 추산 1천58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주택 2층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형우 기자

금타 노동자들, 대체공휴일 가산임금 소송 ‘일부 승소’

24시간 교대 사업장 첫 사례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동자들이 대체공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부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등 1천888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직원들에게 대체휴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나 이를 정하는 방법 등 어떠한 사항도 단체협약 등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대체공휴일 가산임금 청구는 받아들였다. 다만 회사의 상여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병원이나 공장처럼 교대제로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명시한 최초의 사례”

라며 “이번 판결이 다른 사업장으로도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도박 자금 마련 택배 빼돌린 30대 구속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배송 물품을 빼돌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절도 혐의 A (30대)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8월 광주지역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며 배송 물품인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전자기기 26개 (1천5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택배 분류 작업 중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고 물품을 빼돌린 A씨는 이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업체가 물품이 사라진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주거지를 옮기고 휴대전화 회선을 해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연상 기자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CMYK